요코테시 마스다 만화 미술관

마스다의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요코테시 마스다 만화 미술관은 일본 만화 팬과 전문가에게는 성지로 여겨집니다. 해당 시설은 1995 년에 만화의 원화를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개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새끼 딸린 늑대』의 고지마 고세키(1928~2000 년), 『고르고 13』의 사이토 다카오(1936~2021 년), 『해파리 공주』의 히가시무라 아키코(1975 년~)와 같은 유명 만화가의 작품 등 소장 중인 원화가 수만 장에 달합니다. 요코테 출신의 만화가 야구치 다카오(1939~2020 년)의 전 작품집을 비롯해 허영만, 이현세 등 저명한 한국 작가의 원화를 포함한 일본 국내외 180 명 이상에 달하는 만화가의 원화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미술관은 만화가들이 손으로 그린 원화를 보존하고 전시함으로써 만화 문화의 공유와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 층에 있는 '만화 문화 전시실'에는 일본 만화 문화의 개요와 미술관의 활동, 만화 제작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 층으로 이어지는 경사로의 벽은 상설 전시실의 일부로, 만화 원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만화가들이 원고를 인쇄소에 넘기기 전에 수정한 연필 자국이나 수정용 잉크 자국이 남아 있는 귀중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2 층에는 아키타현 출신 만화가들의 작품을 모아둔 코너, 일본의 대표적인 만화에 나온 여러 명언을 통로에 전시한 '명대사 로드' 그리고 프로 만화가의 지도를 받으며 만화 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 룸' 도 있으며 만화 관련 서적 약 25,000 권을 열람할 수 있는 '만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명대사나 전시물은 정기적으로 교체되므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지만 1 층에 있는 '특별 전시실'은 유료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역 만화가들과 협업하여 만든 오리지널 작품의 전람회 등 독특한 기획전이 개최됩니다. 1 층에는 '만화 카페'도 있어서 방문한 만화가들이 벽에 직접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카페 맞은편에는 '만화 창고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최신식 대형 수장고에는 40 만 장 이상의 원화가 소장되어 있으며 훼손되기 쉬운 원화의 변질을 막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시하는 원화는 일부이지만, 실내 터치 패널을 사용하면 전시품 외에도 원화 데이터를 초고해상도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화는 미술관 직원이 한 장, 한 장 열심히 스캔해서 카탈로그로 만든 것입니다. 페이지 크기, 오염이나 손상, 원화의 모서리나 뒷면에 써진 메모와 같은 정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주 세세한 정보까지 기록하여 소중한 유산으로서 차세대 만화가들에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 미술관의 목표입니다.